



ht p://www.koreacma.org

NEWS

한국교회음악협회
KOREA CHURCH MUSIC ASSOCIATION

제115호

2021년 3월 1일

발행인 박신화
편집인 김용훈

여호와께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 24-26)



민수기의 말씀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 교회음악 동역자분들이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요셉도 지금 우리가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고난의 시간을 20년 이상 보냈으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는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그들을 두려워 말라”라고 선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도 어려움이 계속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새로운 날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 3월 1일에

한국교회음악협회 이사장 박 신 화



코로나19 시대의 극복을 위한 기도문

은혜의 하나님!

백신접종이 시작된 이 땅에 집단면역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시어
전에 소유했던 일상으로 돌아가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매일 확진되어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 내려주시고

돌보는 의료진을 축복하여 주사 헌신의 열매 거두게 하소서

지도자들을 축복하시어 이 사회가 사랑과 연대로 하나되게 하시고

교회가 배려와 돌봄으로 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산실되게 하시어

소외된 자, 약자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병자들을 돌보시고 사랑으로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눔
희망
사랑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2020년 1월 20일 대한민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뒤 14개월이 지났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극한 위기가 지금도 계속되지만 온 국민은 깊은 두려움을 견디고 있다. 천 명을 넘어서는 확진자의 숫자에 놀라면서도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처럼 확진자들이 늘어나지 않음을 안도하며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해 이 시련을 극복해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방역요원과 의료진의 노고와 희생은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었다.

21세기는 변형과 발전의 새로운 시대로 예견된 것이었지만 성장과 확대만이 유일한 길이라 생각한 인간의 욕심이 새로움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를 앞당기게 된 것이다. 2020년 이후의 역사는 Before Pandemic 과 After Pandemic 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말이 정착되었다. 또 소중했던 일상을 회복하려는 '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바라는 말이 되었다. 온 세계에 미친 코로나19의 영향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등 전방위적으로 변화를 불러오며 장기적인 글로벌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긴 경기침체가 지속 중이며 분야별, 업종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은 직격탄을 맞으며 벼랑 끝에 몰려있으며, 2030 청년층이 겪고 있는 고용 한파는 이 사회의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신앙공동체 또한 예외로 두지 않았다. 모이는 예배가 멈춰지고 디지털 예배로 전환된 것은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의 소속감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어 전례 없는 영적 침체기를 맞게 하였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한국 개신교는 코로나 집단감염의 온상지로 오인을 받으며 사회로 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이 위기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예배의 본질, 영적인 회복과 더불어 사회와의 소통, 공감에 대해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는 인류에게 엄청난 고통과 공황의 시간을 주었으며 이후에도 우리 사회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과 무기력감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코로나19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노력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온라인 화상을 통하여 무료로 영화도 제공하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에피소드를 나누며 코로나19로 인한 단절감과 소외감, 불안 등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고, 희망을 함께 나누어 주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었다는 것이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했던 인간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으로 점령되어 삶의 터전이 마비되는 모습은 인간의 연약함을 절실히 보여준 증거이다. 그러나 점차적이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증가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척이나 고무적이라고 생각된다.

한국교회에 코로나19를 통한 긍정적인 부분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로, 현장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 주었다는 점이다. 교인들이 현장 예배의 갈급함을 통하여 대면 예배의 감사함을 느끼고 매주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둘째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상은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실체와 위장교회를 공개하며 거짓 선지자의 민낯을 드러내 고발하는 일도 있었다. 이것은 사이비 종교들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거짓된 교회의 실상을 낱알이 밝혀 주는 계기가 되었다.

감염병은 인류의 탄생과 함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대유행의 시기를 거치지 않은 세기가 없었다. 인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대에는 점술가에게 의존했고 중세에는 신에게 의존했으며, 현대에는 과학의 힘으로 이를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위기 속에 희망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참된 지혜를 배우며 성장할 것이라 믿는다.

~글 류한필 편집위원~



주 제 “ 코로나 시대의 교회음악 사역 ”

본 협회의 제13차 학술포럼이 2020년 11월 21일 오전 10시 '한국교회음악협회' 유튜브 채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개최되었다. <코로나 시대의 교회음악 사역>이란 주제하에 양정식 교수가 '코로나 시대의 교회음악교육에 대한 소고', 임창은 지휘자가 '코로나 시대의 음악 사역', 김용훈 지휘자가 '코로나 시대의 교회음악 사역'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하재송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박신화 이사장은 모시는 글에서 '이 학술포럼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교육 사역과 연주 사역, 그리고 교회 사역에 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말을 전했다.

(이하 양정식 교수, 임창은 지휘자, 김용훈 지휘자의 발표 요약)

코로나 시대의 실효성 있는 교육의 의미와 신학교에서의 교회음악 교육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재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예수가 있는 교육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교회음악 교육이 절실하다.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교회음악 교육의 방향성을 정리하면, 첫째,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하여 온라인 교육과 현장 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융합하는 시도를 통해 새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온라인 교육시스템 체제변환에 맞춰 각종 교육에 필요한 콘텐츠를 수집 및 적용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변화하는 교회와 예배 현장에 맞춰 다양한 교과정과 전공영역을 개발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제한된 제정(예산), 예배 장소와 인원의 변화 그리고 온라인 예배환경에 적합한 교회음악 전공자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하나님의 참되신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말씀교육과 진정과 신령함으로 드리는 찬양 교육이 필요하다. 감염병 대유행 시대에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Z세대와 알파세대에게 필요한 분별력 있는 인품 교육과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 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미래의 교회음악은 더 확실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기독교음악으로서의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교육은 꿈을 담는 그릇을 빚는 과정이다. 다른 이들을 앞지를 방법을 가르치거나 오늘의 생존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고 자아를 성찰(省察)하여 '함께'와 '같이'의 가치를 담은 내일의 꿈을 꿀 수 있는 장이 돼야 한다. 앞으로의 교회음악교육이 과거에 하지 말아야 했을 인류의 수많은 실수와 죄악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며, 썩지 않을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계획이 담긴 역사 안으로 다시금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는 교육이 되길 소망한다. (양정식)

코로나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계의 활동(합창단을 중심으로)에 관한 보고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음악계의 고민이 무엇이고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며 연주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리허설 방법의 새로운 시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줌 실시간 연습, 개인 연습을 위한 각 파트별 음원 제작, 연주곡에 대한 문헌자료 배포. Eric Whitacre가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들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영상, 음향 전문가들이 함께 작업을 한다. 지휘자가 직접 성부별로 음정, 박자, 리듬과 articulation 등을 지도한다. 참여 단원들 개개인이 지휘자가 요구하는 음악을 완벽하게 연습한 후 각자의 영상을 만들어 제작자에게 보낸다. (임창은)

코로나 상황이 예상보다 길게 진행되면서 교회가 감염의 주 매개체로 호도되기도 하고 교회음악 사역자들의 사례가 정지되기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교회의 음악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알아보았다. 비대면 연습의 좋은 예로 생각되는 분당우리교회 2부 찬양대의 줌(ZOOM)을 통한 연습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개인 연습을 위한 음원을 제작, 배포하여 사전 개인 연습을 한다. 줌 연습은 먼저 소그룹 회의 기능을 이용하여 각 파트장이 지도한다. 그 후에 전체가 모여 지휘자가 지도한다. 파트 연습과 전체 연습도 한 명의 소리만 듣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다른 이들은 음소거하고, 부르는 사람은 음원을 틀고 노래를 시작한다. 연습 시간은 길지 않게 하고 녹화한 연습 실황은 나중에 대원들과 공유한다. (김용훈)

~ 요약 박장우 편집위원~

이 사 동 정

이상길 고문

3.4(목) 오후 7:30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새봄을 꿈꾸며' 부산시립합창단 객원지휘(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윤의중 부이사장

3.2(화) 오후 7:30 국립합창단 기획공연 3.1절 기념 창작 칸타타 '나의 나라'(작곡: 우효원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강기성 감사

3월 빛나라 성가 28집 녹음
4월16일 오후 7:30 천안시립합창단 객원지휘
(천안시청 봉사홀)

김인재 이사

3.25(목) 오후 7:30 광주시립합창단 제185회 정기연주회 '오감 오색' 지휘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회원 연회비 납부안내

본 협회 정·준회원은 연1회 2만원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정·준회원에게는 획기 적합창세미나 등록 시 2만원 할인혜택, 학술세미나 등의 행사 시 초청, 협회 뉴스레터와 학술 포럼자료 등을 발송해드립니다.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회비 납부 계좌안내 국민은행 928701-01-162084 홍권욱(한교음협)

2021년 한국교회음악협회 이사회

편집부

- 고 문 : 윤학원 김형석 오진득 이문승 전희준 안경재 여흥은 이대구 이상길 이병직
- 직전이사장 : 이기선
- 이 사 장 : 박신화 ● 부이사장 : 윤의중 ● 사무국장 : 임창은 ● 사무차장 : 공기태
- 서무이사 : 한창석 ● 부서무이사 : 박동희 ● 재무이사 : 홍권욱 ● 부재무이사 : 김선아
- 감 사 : 고덕환 강기성

- 각분과 및 위원장: 하계대학분과(이상길), 역사편찬분과(이문승), 학술분과(하재송), 홍보분과(김용훈)

- 이 사 : 강영모 강옥민 구 천 권영일 김경란 김동민 김명엽 김성균 김영호 김옥자 김용훈 김은석 김인재 김희영 김희철 노영아 민인기 박창훈 석성환 손효동 신현민 신호철 양은호 양정식 오윤희 유병용 윤태빈 윤학봉 이근엽 이동훈 이상훈 이선우 장우형 전영혜 정승택 주성희 차영희 최경열 최훈차 하재송 홍정표 황철익(가나다순)
박지훈 백정진 우효원 이민영 조현진 (신임이사)
류한필 박원선 박장우 임한귀 이현철 전은배 최낙기 (추천이사)

- 당연직이사 : 김인주(포항) 박종학(대전) 조기용(경기남) 이승욱(울산) 장철진(목포) 마광휘(인천) 김 돈(영남) 김성식(순천) 김희송(안 산) 박희분(청주) 오승진(광주) 박철성(여수) 황녹연(천안) 박형주(광양)

- 편집위원 : 김용훈 박장우 류한필

- 간 사 : 임은희

위원장: 김용훈
위 원: 박장우
류한필

원고 및 이메일 문의
<kimilein@hanmail.net>